



1 구암서원에서 저녁에 진행되는 미디어파사드. 2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한훤당 김굉필 선생을 기리는 도동서원. 3 50년 역사의 녹양구이 간판메뉴인 몽티기를 비롯해 오드레기, 육회, 불고기 등 4가지 고기 요리를 한번에 맛볼 수 있는 모듬. 4 대구 대니산 정상에서 즐길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



3 50년 역사의 녹양구이 간판메뉴인 몽티기를 비롯해 오드레기, 육회, 불고기 등 4가지 고기 요리를 한번에 맛볼 수 있는 모듬. 4 대구 대니산 정상에서 즐길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

서원뜰 거닐고, 대니산 날아, 짜장빙수 한그릇

달성 도동서원선 선비문화 체험 밤에는 구암서원서 미디어파사드 대구 국제사격장서 실탄 사격도 대동면옥 평양냉면·짜장빙수 유명

이제는 국내여행에서 즐길거리가 무척 다양해졌다. 지자체마다 고장을 대표하는 특정 테마에 국한되지 않고 전에 없던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한다. 다양한 레포츠 시설이 생겨났고, 기존 명소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색다른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여행의 즐거움인 식도락도 트렌드를 반영한 기발한 아이디어의 음식들이 등장해 찾는 재미를 더해준다. 요즘 대구를 찾으면 이런 여행의 최신 트렌드와 만날 수 있다.

●미디어파사드로 만나는 선비문화
대구와 경북은 서원으로 대표되는 유서깊은 선비문화로 유명하다. 달성 도동서원은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한훤당 김굉필 선생을 기리는 서원이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차분한 느낌의 관내

를 거니는 느낌이 고즈넉해 좋다. 앞뜰 둘레 8m의 아름드리 은행나무는 400여년의 나이를 자랑한다.

대구에는 김굉필 선생의 유적이 여러 곳 있다. 낙동강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풍광 좋은 곳에 자리한 이노정도 그 중 하나다. 김굉필과 정여창 선생이 서로 교류하며 학문을 가르치던 곳인데 팔작지붕의 아담한 건물이 인상적이다.

산격동 연암공원의 구암서원은 현대의 영상기술이 서원문화와 만나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낸 곳이다. 달성 서원의 선조를 모신 곳으로 134m 연암산 자락에 위치한 서원 앞에 서면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이곳에선 여름이 내리면 서원 건물을 스르륵 삼아 멋진 미디어파사드가 열린다. 선비문화를 테마로 한 영상은 화려한 색감에 빠른 진행으로 몰입감이 상당하다. 서원 건물과 영상이 만나면서 주는 느낌이 색다른데, 여기에 여름밤의 정취가 어우러져 도심여행의 색다른 매력을 더해준다.

●사격, 패러글라이딩까지
다양한 레포츠도 대구여행서 제대로

즐길 수 있다. 2008년 문을 연 대구국제사격장은 사격 엔터테인먼트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종합시설이다. 일단 사격장 규모가 19만8000여㎡로 엄청나다. 실탄사격은 이제는 여러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광이지만, 이곳은 권총 실탄사격부터 공기소총, 스크린 사격장 등 다양하다.

넓은 부지와 산속이란 입지조건 덕분에 클레이 사격 체험도 가능하다. 심지어 여러 명이 방문했다면 단체 서바이벌 게임도 즐길 수 있다.

달성군 구지면과 현풍면의 경계에 있는 408m 대니산에서는 패러글라이딩도 즐길 수 있다. 경치 좋은 현풍면 일대와 달성군과 고령군을 감아 도는 낙동강, 비슬산과 가야산 등을 하늘에서 바라보는 재미가 남다르다.

●평양냉면부터 짜장빙수까지 먹부림
평양냉면은 지역마다 남다른 내공과 역사를 자랑하는 곳들이 있는데, 대구에선 대동면옥을 꼽을 수 있다. 중국 국채보상로 102길에 있는데 골목에 공pong 숨어있어 초행길에는 찾기가 쉽지

않다. 허름하지만 범상치 않은 내공이 느껴지는 외관이 인상적이다. 물냉면의 경우 메밀면인 평양식과 고구마 전분면인 함흥식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 비빙냉면은 함흥식 하나다.

쫄면과 고기의 식감이 인상적인 소고기 생고기, 몽티기는 대구 별미 중 하나다.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녹양구이는 대구 몽티기를 말할 때 꼭 거론되는 곳이다. 생고기를 좋아하지 않거나 다른 것도 즐기고 싶다면 몽티기, 오드레기, 불고기, 육회 등이 함께 나오는 모듬을 택하면 좋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동성로의 디지털 카페 '스위트 앤드'는 캐릭터 무늬를 테마로 한 곳인데 요즘은 '짜장빙수'란 색다른 메뉴로 유명세가 높다. 이름 그대로 짜장면을 빙수로 구현했다. 담는 그릇부터 꽤 그럴듯한데 빙수를 국수가 락처럼 가늘게 뽑았고 단팥을 초장소스처럼 담았다. 거기에 단무지는 망고로, 양파는 찰떡으로 재현했는데 대구여행의 SNS 먹방샷에도 딱 좋다.

대구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레저
스포츠동아 2021년 7월 9일 금요일 15



노스페이스의 '팀코리아 응원 챌린지'.

"파이팅 코리아...도쿄를 정복하라"

노스페이스, '팀코리아 응원 챌린지' 진행 참가자에 증강현실 체험 및 다양한 경품 제공

대한체육회 및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팀코리아' 공식파트너인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노스페이스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팀코리아 응원 챌린지'를 진행한다.

국가대표 결단식이 열린 8일부터 도쿄올림픽 폐막식이 열린 8월 8일까지 노스페이스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한다. 참가자들에게 페페트빙이 영원아웃도어의 친환경 혁신 기술인 '노스페이스 K-에코 테크'를 통해 친환경 팀코리아 공식 단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증강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증강현실 체험 영상 또는 사진과 함께 지정된 필수 해시태그(#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응원챌린지)를 달아 인스타그램 스토리 또는 피드에 업로드한 후 노스페이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하면 된다.

이벤트 참가자 중 100명을 선정해 팀코리아 응원 캠페인 시상용 단복 세트(5명), 특별한 애슬레저족으로 활용 가능한 아노락(10명), 반팔 티셔츠(50명), 팀코리아 마크가 포인트인 대화용 패선마스크(35명) 등 'K-에코 팀코리아 컬렉션'의 주요 제품을 증정한다.

영원아웃도어는 2016 인천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2016 리우 하계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국제대회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단복을 책임지며 팀코리아의 든든한 지원자로서 국가 스포츠 발전에 조력해왔다. 2024년까지 대한체육회 공식파트너를 맡는다.

영원아웃도어 | 양형모 기자
▶팀코리아 컬렉션을 착용한 노스페이스 홍보대사 신인아.



제주드림타워, 버튼 이 세프 영입



복합리조트 제주드림타워는 38층 스테이크 하우스의 총괄책임자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의 '컷 싱가포르'에서 총괄책임자를 맡았던 버튼 이(사진)를 영입했다. 버튼 이 세프가 이끄는 제주드림타워 스테이크 하우스에서는 시그니처 메뉴인 한우 꽃등심 스테이크를 비롯해 제주 흑돼지 토마호크, 제주산 초당 옥수수와 당근, 랍스터 등이 한데 어우

러진 해산물 짬, 전복 록펠러 등의 독창적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서울관광재단, 체험관광 공모서 22개 선정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체험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을 실시해 식음료, 레저, 뷰티, 한류, 비대면 등 총 12개 분야에서 22개의 콘텐츠를 선정했다. 올해는 '내 손으로 만드는 BTS DIY 키트'(알파웨이),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옛 그림 이야기'(민화화실biss) 등 비대면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 체험이 다수 선정됐다. 또한 '밀키트! 이제 집

에서 만들자'(지아네요리공작소), '쿠킹박스가 있는 서울여행'(오미 요리연구소) 등 식음 분야의 콘텐츠도 많았다.

밀레클래식, 코로나19 의료진에 티셔츠 기부



밀레클래식은 최근 서울 서초구청 보건소에 500만 원 상당의 아이스шел 티셔츠 100장을 전달(사진)했다.

이번 기부는 무더운 여름철 두꺼운 방호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코로나19 현장 의료진을 위해 진행됐다. 아이스шел 티셔츠는 아웃도어의 기능성에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춰 누적 판매 4만 장 이상을 기록한 밀레클래식의 대표 제품이다. 신축성과 흡수·속건 기능이 우수하고 땀이 나면 흡열효과를 가속시켜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냉감 프린트가 적용됐다. 장시간 방호복을 착용하고 더위를 견뎌야 하는 의료진이 시원하고 쾌적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이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9일(금) 음력: 5월 30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삼가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상가에서의 음식을 조심하라.	병진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라. 예술 종사자는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보면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신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지나치게 설치면 실수한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며 경쟁도 심할 때이므로 일과라도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침착하게 행동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문서 문제로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다.	사방이 위험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불화가 있을 수 있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승진 운이 있으니 말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계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공연한 심통에 짜증만 낸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매사 꼼꼼히 살펴라.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러서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리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래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도 괜찮다. 망신에 관개수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고 관계가 되면 이롭다. 활발히 움직여라.	쇠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함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불이 멀지 않은 법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재능이 빛을 보는 날이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 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관재, 송사, 사고를 조심하라.

오늘의 날씨			9일(금)		
서울 30/20	인천 30/10	춘천 70/60	22 29	22 27	23 30
강릉 30/30	대전 30/20	전주 30/20	21 26	23 30	23 31
광주 30/60	대구 60/60	부산 30/20	23 30	22 30	23 28
창원 30/20	제주 60/60	지역	23 29	25 29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17호

발행인: 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신입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